

# “예열도 마쳤다”... ‘천재 타자’ 강백호가 돌아온다



순위 경쟁에 불이 붙은 KT 위즈에 ‘천군만마’가 온다. ‘천재 타자’ 강백호(23)의 복귀가 눈앞이다. 이강철 KT 감독은 “강백호는 18일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1군에 합류한다. 등록 후 경기에도 바로 기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획대로라면 강백호는 지난달 2일 왼 햄스트링 부상으로 말소된 지 47일 만에 1군에 돌아오게 된다. 막바지 순위 다툼이 치열한 시점에서 기다

햄스트링 부상 이탈한 강백호, 오늘 1군 등록 예정  
막바지 순위 다툼 치열한 시점서 KT 간판 타자 복귀

리던 간판 타자의 복귀는 더욱 반갑다. 올 시즌 하위권에서 힘겨운 시즌을 열었던 KT는 반등에 성공하며 4위까지 올라섰다. 16일 현재 3위 키움 히어로즈를 3게임 차로 추격 중이다. 이제는 막판 스퍼트가 필요한 시간, 강백호가 돌아오면 KT 타선은 더욱 탄탄해진다. 홈런 1위를 질주하고 있는 4번 타자 박병호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강백호가 타선에 들어서면 현재 라인업에서 빠지는 타자가 자연스럽게 대타 자원이 될 수 있다. 마땅한 대타감이 없는 KT로서는 승부처에서 낼 수 있는 강한 카드를 쥐게 된다. 강백호의 몸 상태에 대한 우려는 덜었다. 이 감독은 “라이브 배팅 영상을 보니 100% 컨디션인 것처럼 치더라”고 설명했다. 남은 과제는 경기 감각 회복이지만, 이 부분에서도 강백호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강백호는 부상 후 첫 실전이었던 16일 고양 히어로즈와 퓨처스(2군)리그 경기에서 2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 2루타 하나를 포함해 3타수 2안타를 뽑아냈다. 이 감독은 복귀를 앞둔 강백호의 2군 경기 출전을 2경기로 예고하면서 “강백호에게 ‘천재 타자’라고 하더라. 천재라면 2경기에서 감각이 올라와야 하지 않나”라고 농담을 섞어 기대를 드러냈는데, ‘천재 타자’답게 첫 경기부터 능력을 드러낸 셈이다. 강백호는 프로 데뷔 4년 차였던 지난해 타율 0.347, 16홈런 102타점으로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그러나 올해는 개막전 발가락 부상으로 시즌 출발이 늦었고, 지난달 햄스트링 부상이 지 당하며 주춤했다. 올해 22경기 출전에 그친 강백호의 남은 시즌 활약에 KT의 명운도 갈릴 수 있다.

뉴스



임성재·김주형, PGA 최종 양궁왕전 진출 굳히기 나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를 소화 중인 4인의 ‘코리아 브라더스’가 최종 관문인 투어 챔피언십을 향해 다시 댕다. 임성재, 김주형, 이경훈, 김시우는 18일(한국 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윌밍턴 컨트리클럽(파71 7534야드)에서 열리는 BMW 챔피언십에 모습을 드러낸다. BMW 챔피언십은 PGA 투어 플레이오프 2차전으로, 지난주 치러진 페덱스 세인트 주드 챔피언십(1차전) 결과를 합산한 페덱스컵 포인트 상위 70명에게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BMW 챔피언십이 끝나면 생존자는 30명으로 줄어든다. 이들은 다음 주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을 통해 왕좌를 놓고 격돌한다.

마지막 관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BMW 챔피언십 종료 후 발표될 페덱스컵 랭킹에서 30위 이내에 진입해야 한다. 한국 선수 중 페덱스컵 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는 임성재다. 큰 기복 없이 한 시즌을 보내면서 상위권인 11위에 자리 잡고 있다. BMW 챔피언십에서 엄청난 부진을 겪지 않는 이상 투어 챔피언십 진출은 확정적이다. 다만 순위에 따른 보너스 스코어가 적용되는 투어 챔피언십을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출발하려면 이번 대회를 통해 랭킹을 끌어올리는 것이 유리하다. 김주형에 플레이오프 무대는 그야말로 덩에 가깝다. 김주형은 PGA 투어 시즌 마지막 정규대회인 윈덤 챔피언십 제패로 극적으로 플레이오프에 합류했다. 김주형은 플레이오프 데뷔전이었던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에서 공동 13위를 차지하며 큰 무대에서도 쉽게 주눅 들지 않는 강신장의 면모를 보였다. 현재 페덱스컵 랭킹은 25위로 이번 대회에서 투어 챔피언십 진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위치다.

## 100승 페이스 SSG, KBO 역대 최다승 정조준

KBO 역대 최다승은 두산의 93승...SSG 산술적으로 100승 가능

올해 기록적인 승리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SSG 랜더스가 한 시즌 최다승 경신을 바라보고 있다. SSG는 17일 오후 6시30분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KIA 타이거즈와 맞대결을 펼친다. 최근 2연승을 올린 SSG는 시즌 71승 3무 31패(승률 0.696)를 기록해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시즌 초반 10연승을 질주하면서 선두 체제를 구축했고,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는 KBO 4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2010년 SSG의 전신인 SK 와이번스의 우승 이후 12년 만에 통산 4번째 페넌트레이스 정상을 노리고 있다. SSG로 팀명을 바꾼 이후 2년 만에 우승 도전이다. SSG는 올해 7월에 육박하는 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인 전력을 선보이고 있다. 윌머 폰트와 김광현이 이끄는 선발진은 리그 최강이다. 완벽한 5선발 체제를 구축했다. 선발진이 부진할 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오원석, 노경은 등 자원이 대거 풀린다. 선발 자원이 넘쳐서 불펜으로 내려보낼 정도다. 폰트는 13승을 올려 KBO리그 다승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김광현은 10승에 평균자책점(1.82) 1위를 달리고 있다. 새 외국인 선수 손모리만도는 수준급 피칭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한 노경은은 선발과 불펜에서 9승을 올려 9년 만에 두자릿수 승리를 노리고 있다. 최정, 한유선, 추신수, 최지훈, 박성환 등 타선의 신구조조와 짜임새도 좋다. 새 외국인 선수 후안 라가레스는 공수에서 안정감 있는 모



습을 보여줘 후반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105경기를 소화한 SSG는 올 시즌 39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SSG가 현재와 같은 승률을 유지하면 정확히 100승이 가능하다. KBO리그 역대 한 시즌 최다승은 2016년, 2018년 두산 베어스가 기록한 93승이다. 하지만 SSG는 시즌 후반 1위가 확정되면 힘을 뺄 가능성이 크다.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와 함께 내년 시즌을 위해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다. SSG는 2위 LG 트윈스(61승 1무 39패)에 무려 9경기 차로 앞서고 있다.

## ‘레전드’ 이강철의 소회 “좀 했네”

KBO리그 40인 레전드 선정

성과를 인정 받는 건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다. 선수 시절 귀에 못이 박히도록 호평을 들었던 전설적인 투수에게도 또 다른 칭찬이 반갑긴 마찬가지다. 이강철 KT 위즈 감독은 KBO리그 레전드 40인에 선정됐다.

현역 시절 그의 기록을 떠올리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1989년 해태 타이거즈의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에 첫 발을 내디딘 그는 데뷔 첫 시즌부터 15승, 138탈삼진을 수확하며 특별한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1998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 승리를 수확, 10년 동안 매 시즌 10승-100탈삼진 이



상을 기록했다. 이는 KBO리그 역대 최다 기록이다. 그야말로 ‘강철’ 같은 존재감으로 마운드를 지킨 그는 통산 602경기에서 152승 112패33홀드 53세이브 평균자책점 3.29를 수확했다. 역대 최다승 4위의 기록이다. 투구 이닝(2204⅓이닝), 탈삼진(1751개)은 나란히 3위에 올라있다.

16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경기를 앞두고 만난 이 감독은 40인 레전드 선정 이야기에 “영광스럽다”며 미소를 띠었다. “많은 이닝과 승을 거두긴 했지만 나는 큰 타이틀이 없다. 연속적인 기록들이 있긴 하지만 기사화되는 건 적은 것 같다”고 돌아본 이 감독은 “내가 해 온 것들이 재조명 받는다는 게 개인적으로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좀 했네’ 싶은 생각도 들더라. 기분이 좋았다”며 환하게 웃었다.



무안군 유소년축구단(무안FC), 전국대회 준우승 쾌거

무안군 유소년축구단(이하 무안FC)이 U-12 종합 준우승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 동안 전남 해남군 우슬체육공원에서 열린 ‘2022 해남땅끝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U-12 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2022 해남땅끝배 전국유소년클럽 축구대회’는 (사)한국유소년축구클럽연맹이 주최하고, 해남군과 해남체육회, 해남축구협회, ㈜스타스포츠가 후원한 대회로 U7-8, U9, U10, U11, U12, 중등부(1-2학년), 총 6개 부분으로 나누어 총 64팀으로 구성되어 1,6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전국규모의 대회이다. 무안FC는 U12가 총 16개 팀과 예선경기부터 5강까지 4승 6무 무패행진을 하고, 이후 천안상현수FC를 상대로 0:0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고, 승부차기에서 2:3으로 져서 아쉽게도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무안FC 노현수 감독은 우수지도자상을 U12 주장인 이동현선수는 우수선수상을 U11는 페이플레이 상을 수상했다. 무안FC 노현수 감독은 “우리 무안FC 아이들의 열정과 실력은 전국 최고였으며 올 10월 개최되는 무안군 대회에서는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하고, “무안군과 학부모님들의 도움으로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무안=이성기기자



## 장흥군, ‘제60회 회장기 전국 남·녀 중·고 학생 탁구대회’ 성료

5일간 대회 동안 코로나 확진자 없이 안전한 대회로 마무리

장흥군은 지난 10일부터 5일간 장흥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60회 회장기 전국 남·녀 중·고 학생 탁구대회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밝혔다. 한국중고등학교탁구연맹(회장 박일순)이 주최하고 장흥군청, 장흥군의회, 장흥군체육회가 후원한 이번 탁구대회는 700여 명의 선

수 및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남·녀 중·고 등부 단체전, 개인단식, 개인복식으로 치러졌다. 경기 결과 단체전은 남고부 두호고, 여고부 영천여고, 남중부 내동중, 여중부 문산수역중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단식은 남고부 장한재(대전동산고),



여고부 허예은(문산수역고), 남중부 최호준(내동중), 여중부 김수지(안양여자중)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복식은 남고부 김민수, 이동혁(두호고), 여고부 유다현, 이다연(청명고), 남중부 오유진, 김성원(장흥중/포항시), 여중부 박가현, 최나현(호수돈여중)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관중 출입이 가능했던 이번 대회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대회 기간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성 장흥군수는 “2019년 장흥군에서 치러진 보람상조배 제56회 전국 남녀 중·고학생 종합탁구대회에 이어 3년 만에 열린 전국 규모 탁구대회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게 노력해 준 대회 관계자 및 선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저마다 평소 갈고닦은 기량으로 선전을 펼치고 아름다운 장흥에서 좋은 추억을 담아 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기자